

중앙교회 자녀와 함께 하는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20장 다같이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3:20 인도자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설 교 “ 친목과다 신드롬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과 항상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를 만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녀되게 하여주옵소서!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과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도와주세요!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목과다 신드롬”

(요한계시록 3:20)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고, 어떤 개척교회는 “자체의 건물을 갖지 않겠다”고까지 하면서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하자 건물을 짓고 중대형교회가 되어 가면서, 일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 새 개척교회를 설립한 일이 빈발해왔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도 동력은 떨어지고 친교만이 무성해진 결과다. ‘2021 기독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에 의하면 “교인 간에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는 33%로 나타났다. 화상으로 온택트(ontact) 하더라도 비대면 모임은 응집력이 약화되며 교인들의 충성도나 교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친교(‘코이노니아’)는 본래 ‘공통의 것을 나눈다’는 뜻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박해를 받는 환경에서 쓰인 요한의 문서들을 보면 ‘사랑의 사قم’을 무척 중시했다. 박해 시대에 친교는 교회의 보호막이었다. 친교는 신앙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데 기름 역할을 한다. 초대교회는 친교를 통해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살아갔다. ▶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제 ‘친교’를 넘어 ‘친목’으로 넘어갔다. 주님을 중심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사귀다. 연중 교회 행사를 전수 조사해 보면, 친목 성격의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친목 모임이 전도 모임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남녀전도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과다한 친목 활동은 교회 재정에도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주님께서 라오디게아교회를 책망하셨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성도 간에 친교가 넘쳐, 주님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인 교회가 되었다. 우리들끼리 친목하느라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지내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라고 하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산 위의 체험’은 ‘산 아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셨다. 하지만 베드로보다 더 열심이 있는 우리는 기어이 ‘산 위의 종교’를 만들었다.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만 많아지고 있다. ▶ 사도행전 1:8과 8:1을 비교해 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예루살렘교회가 제도화되자 자만했고 내부적 갈등도 겪었다. 그러자 주님은 예루살렘교회에 환난과 박해를 가해 흩어 놓으셨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8:1).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박해가 임한 것이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교회들은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신자를 교회에 묶어둔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제자나 교회의 일꾼을 만든다. 세상과 단절되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회는 방주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구조선 내지는 군함이 되어야 한다. 신자들은 교회는 현재이고 비신자는 교회의 미래다. 신자들끼리 교회에 모여 있기만 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 코로나19는 교회와 지방회와 총회의 대부분의 행사 성격의 모임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해 헌금은 줄었지만, 행사로 지출되는 재정이 절약되어 재정 건전성이 도리어 향상되었다. 이제는 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고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자녀를 위한 쉬운 설교



오늘 읽은 본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이 본문은 우선은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함께 모임을 하고, 예수님이 아닌 성도 간에 친교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들끼리 즐겁고 행복하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모임에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을 모셔들이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하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여 우리끼리 즐겁게 먹고 나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 들이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